

담양군 창평면 슬로시티의 경관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alysis of Townscape Characteristics
of Slow City in Changpyeong, Damyang-gun

문 선 욱

청운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

Sun Wook Moon

Department of Interior Design, Chungwoon University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 2.1 슬로시티 개념
- 2.2 국내 슬로시티 운동
- 2.3 해외사례 분석

3. 담양군 창평면 슬로시티 경관디자인 특성

- 3.1 슬로시티 지정개요 및 추진체계
- 3.2 경관구조와 자원
- 3.3 경관 부문별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슬로시티는 인간과 자연 환경의 속도를 존중하고, 지역성과 전통성에 기초한 삶을 유지하여, 환경과 경관의 위협에 맞서는 운동이다.

본 연구는 도시형 슬로시티인 담양군 창평면 슬로시티를 대상으로, 경관자원과 경관부문별 현황특성을 도출하고, 정체성 있는 슬로시티 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창평면 슬로시티는 비옥한 토지와 뛰어난 자연을 배경으로 한 집적화된 전통가옥과 돌담길 등 독특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삼지내 마을은 편측중심으로 환형의 축을 가짐으로써 기성시가지와는 섬과 같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부문별 주요 특성으로는 개선의 노력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고증 없이 현대적 재료로 정비된 돌담, 벽체, 지붕, 대문 등으로 청결하지만 어색함을 자아냈으며, 빈 가옥 등 관리의 허술함도 보였다. 또한 기성시가지 및 마을 내 혼재되어 있는 근현대식 건축물과 시설물의 무분별한 자극적인 색채사용은 경관의 부조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전통경관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고증을 통한 친환경적 원형의 전통재료와 전통가공법 및 전통디자인을 계승한 디자인을 통해 연차적인 보수 및 유지관리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발적이며 지속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장단

기 로드맵에 의해 순차적이고 서두름이 없는 일관성 있는 경관디자인 정책과 실행이 필요하다. 우선 그 일환으로 경관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수립하고, 차츰 삼지내 마을은 물론 창평면 전 지역에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전통과 기성시가지의 근현대 구조물과의 이질적인 혼재를 서서히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의식제고를 위한 지역민과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현실적인 재정마련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실행을 유도해야 한다.

주제어

슬로시티, 경관디자인, 풍토성, 전통성

Abstract

Slow city movement based on vernacular and traditionality is respectful of human and nature and stands against a treat to the environment and townscap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ownscape characteristics of slow city in Changpyeong, Damyang-gun and to propose the plan for continuous townscape's ident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Slow city in Changpyeong has unique townscape resources; aggregation of Korean southern provinces traditional houses and alley by stone walls and so on. But despite the improvement of townscape, there are many clashes of colors or materials and weak points in management caused by no historical researches.

Therefore slow city in Changpyeong should set up a goal to preserve traditional townscape images. It's based upon the premise that is historical research. And it's important that coherent townscape policy should carry out thoroughly. For putting a plan into practice first, it should set up design code and guideline. And then application of area should expand all Changpyeong. Those processes should be gradually improved to harmonize the traditional and the modern characteristics. In addition, it is clearly necessary to educate all members, and to assist realistic finance for attracting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residents.

Keyword

slow city, townscape design, vernacular, traditionality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는 디지털의 빠른 속도와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대량생산에 의한 규격화, 기계화, 획일화로 향하며, 전통사회의 인간 고유 존재방식에 의한 안정된 삶을 해체시키고 있다. 권영걸(2010)은 슬로시티를 이러한 패스트 시티의 문화, 경관, 자연 등 생활 전반의 동질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슬로시티는 인간과 자연 환경의 속도를 존중하는 삶을 유지하여 가속화되는 도시화를 지양하고, 지역성과 전통성에 기초한 삶의 질 향상의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결국 정신적 풍요와 여유를 추구함으로써 대도시와는 차별화된 지역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경쟁과 다툼의 삶으로 내몰리지 않는 생활의 장을 추구하는 슬로시티운동은 환경과 경관의 위협에 맞서는 운동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담양군 창평면 2007년 12월에 국제 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인증받았으며, 슬로푸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슬로시티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경관적 측면에서는 옛 모습이 어느 정도 보존된 전형적인 마을로써 광주광역시의 대도시권에 인접한 도시형 슬로시티라는 데 그 선정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슬로시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한된 예산과 남용된 현대적 재료 및 졸속 보수 등으로 나타나 우려되고 있다. 또한 낡은 전통한옥과 도로 내부의 돌담길, 복개된 하천의 복구공사만으로 전체적인 슬로시티 경관 형성과 정비는 어려운 상황으로,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유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슬로시티의 개념과 선진 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도시형 슬로시티인 담양군 창평면 슬로시티의 경관자원과 경관부문별 현황 특성을 분석하고, 정체성 있는 도시형 슬로시티 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담양군 창평면 슬로시티의 경관디자인 특성 도출을 위한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슬로시티 운동의 배경과 제도를 알아보고, 국내 슬로시티 운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이미 공인된 유럽의 슬로시티 사례와 슬로시티 유사개념의 지역개발사례인 일본의 슬로타운을 문헌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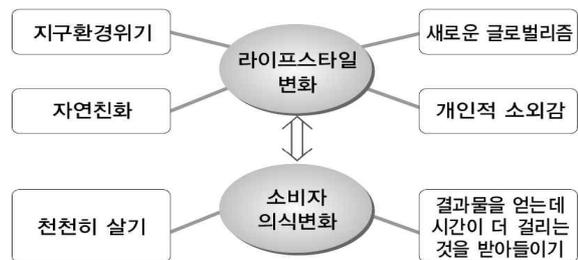
고찰과 2010년 10월, 2011년 7월 중 두 차례를 현지 답사를 통해, 담양군 창평면 슬로시티의 추진배경, 관련정책 및 사업, 경관자원 및 구조, 경관부문별로 분석하고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담양군 창평면 슬로시티가 경관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디자인 계획 및 관리방안을 제안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슬로시티 개념

슬로시티 운동의 기원은 슬로푸드의 느낌의 철학에 기반을 둔 지역생활 문화로써, 속도사회와는 다른 장소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지역과 삶의 공간을 확장한 것이다(백두주, 2008). 슬로시티는 대도시 물질문명과 기계의 속도에 맞추는 패스트시티(Fast City)의 반대개념으로 파괴의 개발이 아니라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도시조직을 지키는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탈리아 북부의 소도시 그레베 인 키안티(Greve in Chianti)에서 패스트푸드의 추방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슬로시티는 '작은 마을'을 표방한다. 당시 시장 파올로 사투르니니(Paolo Saturnini)가 주민들에게 슬로시티의 구체적 역할과 마을의 정책 방향을 설득하여 1999년 '슬로시티(Slow City)'로 선언하였다(손대현, 장희정, 2010). 그 후 슬로시티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2009년까지 국제슬로시티연맹의 인증을 받은 슬로시티는 20국가의 135개 도시이다.



[그림 1] 슬로시티운동의 배경

(출처: 조상필(2008), 국제슬로시티 가입 기본요건 및 지역발전 사업 지침, 전남발전연구원)

슬로시티에서 도시는 공동체 성격이 강한 작은 커뮤니티의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국제슬로시티연맹(Cittaslow International HQ)으로부터 철저한 조사에 의해 인증받은 슬로시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통 인구 5만명 이하, 대체에너지 등 환경친화에너지 개발, 전통의 보전과 육성, 생태 및 환경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인정받게 된다. 공식 인증 요건 항목은 크게 환경, 기초인

프라, 도시경관 및 미관, 토산품 가치화 정책, 관광객 수용정책, 주민참여의 6개 분야이며, 경관 및 공간 계획과 많은 부분이 관련 되어있다. 세부내용으로는 마을광장의 네온사인 없애기, 전통 수공업, 전통조리법 장려, 문화유산 지키기, 차량통행 제한, 자전거 도로 만들기, 경적 등 소음 줄이기, 주민들의 의견 수렴, 나무심기, 글로벌 브랜드의 대형 체인점 거부, 패스트푸드, 유전자 변형 음식 거부, 외지인의 부동산 거래 금지, 실외 자판기의 최소화 등이다. 그 외에도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행동지침을 갖추고, 상향식 접근법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2 국내 슬로시티운동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2007년도에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신안군 증도, 완도군 청산도, 장흥군 유치·장평면, 2009년도에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충남 예산군 대흥·용봉면, 2010년도에는 전라북도 전주시 한옥마을과 수도권인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이 지정되었고, 2011년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부동면, 상주시 함창읍·이안면이 추가되어 총 10개의 농어촌 마을이 전통유산과 지역특성이 잘 보존된 '느림의 도시'로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슬로시티 인증의 초기단계로, 지속적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며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제도와 실행체계 등을 보완·정비하고 실천해야 해야 한다.

오동훈(2009)은 지역 여건에 있어서 도시화율이 90%를 넘어선 우리나라와 슬로시티의 본 고장인 이탈리아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무분별한 도입과 확산보다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지역들을 슬로시티로 인증하는 한편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한국형 슬로시티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슬로시티는 보여주기 위한 관광객들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수한 정주공간에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지역자원을 향유하는 삶을, 관광객은 보고 느끼면서 차별화된 체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우수한 지역의 생활문화유산이 무분별한 관광객 유치로 인해 훼손됨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보전하며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계획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안종현(2008)의 주장과 같이, 슬로시티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슬로시티 관련 조례 등을 재정함으로써 건축 활동 및 각종 사업이 그 취지에 맞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3 해외사례 분석

1) 슬로시티 사례

① 그레베 인 키안티 (Greve in Chianti, Italia)

슬로시티 운동의 발상지인 그레베 인 키안티는 1990년대 초반 농어촌의 문제들을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시행으로, 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림2]와 같이 작은 마을만이 갖고 있는 정서적 여유로움과 예스럽고 시골스러운 경관을 부각시켜 역설의 부가가치를 얻고 있으며, 토착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체적 규정을 두는 등 정체성 발굴을 지향하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의 대형 체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금지하여 외부 자본의 유입을 막았고, 외부인의 부동산거래를 금지하였다. 농축산물과 수공업품 생산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였으며, 보행자를 위한 차 없는 거리를 추구하여 도심지로의 자동차 진입금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 개설하였다. 화려한 네온광고 금지, 지역의 독특한 소규모 식당, 수목·공원·광장을 보호하고, 소음규제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시의 허가에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과 실행은 전통장인 기술과 풍부한 문화가 전승되어, 다른 도시에 예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삶으로부터 형성되어 전통적인 마을풍경을 보전하는 정체성을 지닌 새로운 도시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그레베 인 키안티의 언덕경관과 성당거리의 광장
(출처 손대현(2010), 세계의 슬로시티여행 슬로시티, 1(2))

② 오르비에토 (Orvieto, Italia)

오르비에토는 인구 21,000여명의 로마 북쪽 약 120km 거리, 해발 195m에 있는 고도로, 중세시대 교통과 군사요충지였으며 현재 슬로시티국제연맹 본부가 입지하고 있다. 중부 이탈리아의 대표적 화이트와인 생산지이며, 로마네스크, 고딕양식의 두오모 대성당, 와인저장고로 활용되는 그로토 지하동굴, 산 파트리치오 우물 등의 경관자원이 있다. 전통적인 느림 지향적 주민들의 생활방식에 부합하여 슬로시티운동에 높은 호응과 효과를 얻고 있다 [그림3]참조.



[그림 3] 오르비에토 성벽과 안티노리 와인셀러

1980년대 도심에 자동차 유입으로 광장이 주차장으로 변하고, 지반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중세

부터 형성된 도시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지형의 보존과 친환경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 내부의 자동차 이용을 제한하였다(조혜정, 황희정, 2009). 오픈스페이스는 재래시장으로 활용하여 도심활성화를 유도하고, 빛과 소음공해의 저감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도시 외곽 저수지에 수소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의 개발로 CO₂를 저감시키는 것은 물론 유기농에 기반을 둔 '산지생산, 산지소비' 실천으로 CO₂계로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Orti Sociali 프로그램은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 개방되어 있는 지역 공동 소유의 텃밭으로 필요한 채소를 직접 재배할 수 있는 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이다. 한편 전통적 생활양식을 고수하여, 오후 12시~3시까지의 낮잠시간 '시에스타(siesta)' 동안 휴식을 위해 상점의 영업을 지양하고, 저녁산책 '파세자타(passeggiata)'를 통해 마을 내 모든 주민들은 활발한 만남과 교류를 갖는다(박경문, 조영태, 최상희, 장인석, 2008).

③ 헤스부르크 (Hersbruck, Germany)

2001년 독일에서 첫번째로 지정된 슬로시티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환경 친화적인 정책과 역사적인 마을 경관이다.

1998년부터 친자전거 타운으로 지정되어 전국적인 자전거 네트워크와 연계해 여행코스를 개발함은 물론, 자전거 여행객을 위한 호텔과 민박(Bed and Bike) 등 각종 편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췄다. 또한 친환경 공공교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천연가스에 의한 CNG 버스를 운행하여 연료비 절감은 물론 CO₂배출 25%와 매연 80%를 감소시켰으며, 소음 감소 효과도 크게 얻고 있다 [그림4]참조. 생물자원 공급센터에서 만들어진 생태학적 열을 이용한 스파 시설은 친환경 생태도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헤스부르크 전경과 천연가스 CNG버스 (출처 : 손대현(2010), 슬로시티e뉴스레터, 1(3))

④ 미덴 델프랜드 (Midden-Delfland, Netherland)

네델란드의 첫 슬로시티로 2008년 6월에 인증되었다. 인구 18,000명의 농업을 발전시킨 작은 녹색공동체는 정부로부터 관리되고 주목받고 있다.

인구보다 많은 자전거와 자동차 도로보다 긴 자전거 전용도로, 운하, 공원은 매력적인 경관자원이며, 도시화의 압력 속에서도 정통 네델란드의 해변보다 낮은 간척지 마을 경관보전과 목초지 조성 성공했

다 [그림5]참조.



[그림 5] 미덴 델프랜드의 운하와 자전거도로 (출처 : 손대현(2011), 슬로시티e뉴스레터, 13)

⑤ 펠쇼핑 (Falköping, Sweden)

2008년 가입된 펠쇼핑은 '적당히 서두르자', '유니크한 특별성을 찾자', '작은 것을 존중하며 세계화롭게 하자', '인도적인 것과 지속성을 찾자'를 철학으로 하고 있다. 펠쇼핑은 지역민에 의한 공동체 운동이 강점으로, 이들은 자신이 삶의 주체로서 즐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비전에 대한 진정한 관심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높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50년 전에 깔린 철길과 화산 폭발로 형성된 다양한 자연 풍경, 전설적 고원과 언덕, 그리고 5,500년 거석문화의 문화유산 등 독특한 경관을 갖고 있다. 곳곳에 위치한 바이오가스 공장에서 생산된 메탄가스는 친환경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그림6]참조.



[그림 6] 150년 전에 깔린 철길과 바이오가스 공장 (출처 : 손대현(2010), 슬로시티e뉴스레터, 1(5))

1870년 조성된 Asle Ta는 스웨덴의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전통 생활모습을 재현한 곳으로, 2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재단을 만들어 전통 생활의 원형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다.

2) 슬로시티 유사개념 : 일본 슬로타운

일본은 슬로시티와 유사한 슬로타운이 있다. 실행수단에 있어서 마을만들기 등과 연계하여 지역 커뮤니티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로써, 실행수단은 인증 슬로시티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주공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므로 유사개념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현재 홋카이도의 오조라쵸, 카미시호로쵸, 아오모리현의 남부마치, 토토리현의 치즈쵸 등 16개 현·도·부의 시·정·촌이 모여 슬로타운 연맹을 결성하여 일본식 슬로시티를 이끌어가고 있다.

보존, 재생, 순환활동이라는 상위개념에 근간하여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변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슬로타운에 적용하고자 자율적 자체규정으로 [표 1]의 '슬로타운 11계명'을 가지고 있다.

[표 1] 슬로타운 11계명

구분	계명
1	산지생산, 산지소비
2	농가의 리폼
3	향토문화·예능·공예품·요리의 리뉴얼
4	산촌, 강촌, 어촌, 고향에 대한 마음의 보존 및 재생
5	자연에너지 재생
6	이웃 간 협조
7	개인의 자질 향상 (1인 1재능, 2인 1가지 NPO활동)
8	미래에 향상될 교육 및 훈련
9	노인의 지혜를 빌리자
10	오간의 재생
11	아이 많이 낳기 (1+1=3운동)



[그림 7] 치즈쇼의 마을만들기의 기원이 된 삼나무와 산림조합공장 (출처: <http://blog.daum.net/njiworld>)

슬로타운 중 가장 슬로시티와 유사한 지역으로는 톳토리현의 치즈쇼가 있다. [그림 7]과 같이 치즈쇼는 지역자원인 삼나무를 토대로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라는 슬로건 아래 '1/10 운동'이라는 집락단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집락촌의 자부심 회복을 위해 교류정

보의 1축, 주민자치의 2축, 지역경영의 3축으로 구성된 자체규정을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관형성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박경문 외3인, 2008).

3)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앞서 고찰한 해외사례를 종합평가하면 [표2]와 같다. 유럽의 슬로시티 및 일본 슬로타운은 현대화에 의한 도시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즉 지역고유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자원으로 회복시킴으로써 대도시와는 다른 형태의 경제활성화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 실행에 있어서 초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득과 교육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인식을 끌어올림으로써 긍정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주민자치의 거버넌스 개념에 통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경관형성에 있어서는 인위적인 포장이나 치장이 아닌 지역자원에 의한 경제시스템과 생활문화의 장이 자연스럽게 경관에 반영되어 독특함을 보전하고 있다. 또한 단편적인 전통으로의 회귀가 아니며, 슬로푸드 등 농어업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정책에 중점을 둔 국내 슬로시티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표 2] 해외사례 종합평가

	추진배경 및 경관자원	목표 및 원칙과 추진사업	주민참여	
슬로시티	그레베 인 끼안티	낮은 고용율과 인구의 유출 포도·올리브 재배 가내수공업 유지	주말 장터, 일부지역 차량진입 금지 지역전통방식의 벽돌 사용 공공시설물 디자인 제작 외지인 부동산 거래 금지 지역 식재료에 의한 식당운영	초기 항의소동 시장의 끈질긴 설득과 교육으로 점차 긍정적으로 인식
	오르비에토	도심 차량 유입에 의한 지반 문제 발생 지역 내 광장의 주차장화 로마네스크·고딕양식의 두오모 성당 화이트와인 생산지 그로토 지하동굴, 재래시장	수소에너지 개발 교통량 억제 orti sociali(지역공동소유 텃밭) 파세자타(저녁산책)	중세의 옛 모습 간직 희망하는 긍정적 인식
	헤르스부르크	목초지의 전통적 방식으로의 활용 수목을 활용한 지역 전통산업 지속발전 목초지 재생	Local Agenda21, 미니 도시박람회 미니부엌·자전거 프로젝트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활용 노인편의시설 프로젝트	지역공동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 노력
	미덴 델프랜드	전형적인 타운과 푸른 목초지를 조성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장려 해면보다 낮은 정통 네덜란드간척지 자전거와 긴 자전거 전용도로, 윤하, 치즈, 정원	녹색농업 지역산품신회조합 운영 다양한 축제	정부로부터 녹색지구로 관리받는 녹색공동체
	펠스포핑	철도허브로 150년 전 철길, 거석문화유산 화산폭발로 형성된 자연경관 스파 타운, 치즈 레스토랑, 전통 생활모습 공동체 '아슬레 타'	에너지절약을 위한 바이오가스 공장 친환경 자동차를 운행 음식의 고품질을 위한 행복한 동물관리제도	거버넌스 개념으로 전 군정의 행정과 시책으로 전개
유사슬로시티	슬로타운 (치즈쇼) 삼나무	마을만들기와 연계 산지생산·산지소비, 농가의 리폼 향토예술문화·요리 리뉴얼 고향에 대한 마음의 보존 및 재생 자연에너지 재생, 개인의 자질 향상 이웃 간 협조, 아이 많이 낳기 (1+1=3운동) 미래에 향상될 교육 및 훈련 노인의 지혜를 빌리자, 오간의 재생	주민자치와 경영 활발	

3. 담양군 창평면 슬로시티 경관디자인 특성

3.1 슬로시티 지정개요 및 추진체계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은 담양군 통계연보(2010)에 의하면, 총 33.80km²면적의 12개 법정리, 27개 행정리, 36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인구는 4,100여명이다. 전경숙(2010)에 의하면 창평면은 역사적으로 현의 소재지로서 담양의 중심지 기능을 하였고 전한다. 슬로시티 자원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삼천리는 동쪽에는 월봉산 남쪽에는 국수봉이 솟아있고, 마을 앞을 흐르는 천의 모습이 봉황이 날개를 뻗어 감싸 안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삼지내라 불리며, 대체로 평탄한 지형으로 넓고 비옥한 경작지와 풍부한 물이 있다.

현재 창평면은 광주광역시의 대도시 인근 농촌으로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통문화유산과 지역특산물인 지역자원은 슬로시티 인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담양군은 이 지역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죽공예와 죽염장류 등의 발효식품을 생산하는 전통산업과 연계하여 슬로시티로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한과와 쌀엿, 창평국밥, 국수, 떡갈비 등 전통 음식과, 친환경농법을 시행하는 등 지역전통문화와 생태의 보전, 전통 음식, 주민에 의한 지역커뮤니티 운동 전개로, 3대 슬로시티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백제시대에 형성된 삼지내 마을은 부농 창평 고씨 집성촌으로 18채의 전통가옥이 집적화되어 있다. 남도 전통주거양식을 알 수 있는 고재선 가옥(전남민속자료 제5호)은 관광객에게 접근이 허용되며, 그 외에도 남도지방 양반집의 전통 목조건축의 귀중한 자료인 고재환 가옥(전남민속자료 제37호), 솟을대문의 ㄷ자형 양반가옥인 고정주 고택(전남민속자료 제42호), 1875년 건축된 장전이씨 고택(전남민속자료 제 41호), 조선후기 건축된 유종현 가옥(문화재자료 192호)이 잘 보존되어 있다.

36km길이의 돌담길(등록문화재 제265호)은 전통 마을의 골목길로 공동생활공간으로 전이공간으로 커뮤니티 형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산책로로써 가치가 있다. 슬로시티 경관사업으로 삼지내 마을에 추진예정이던 도시계획이 취소되고, 대신 보존과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창평 삼지내마을 종합실천계획’이 2008년 수립되었다. 돌담길 및 건축물 복원 사업, 남극루 정비 및 일주문 설치사업, 아스팔트 제거 및 탐방로 조성 등 환경정비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그림 8]참조. 하지만, 2009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형보존이 요구되는

옛 돌담장을 군청의 성급한 정책 추진에 의해 개보수가 아닌 일방적 철거의 우를 범하여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뉴시스, 2009. 4.16). 한편 마을 내 가구가 개보수시에는 한옥으로 조성할 수 있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8] 지붕개량, 차폐식재, 돌담길 정비

18개의 주민자치회가 있는 창평면은 다른 슬로시티와 비교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장 활발하다. 창평슬로시티 추진위원회는 면사무소에 근거를 두고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을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지키는데 동참하여 글로벌한 한국전통문화체험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창평면 슬로시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문해설가는 양성하여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슬로라이프 아카데미를 통해 슬로푸드와 슬로라이프강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느림의 삶을 장려하면서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표 3] 담양군 창평면 슬로시티 경관관련 사업 및 계획 (출처: 담양창평 슬로시티 추진위원회 자료 및 조혜정, 황희정(2009), 인천지역 슬로시티 도입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등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작성)

구분	내용
슬로시티 정주환경 정비사업 2009~2010	- 삼지천 복원사업 :마을길 명품화 - 남극루 및 주변정비사업, 일주문 설치 : 생태탐방로, 자전거 도로 개설 - 유실수 식재, 수변공원 조성 - 한옥 공가활용, 리모델링, 대문정비, 만남의 광장
돌담길 및 건축물 복원사업	- 탐방 시설계획 : 주차장 및 부대시설 확보 한옥체험관 건립(전시실, 체험관) - 탐방 루트계획 : 돌담장 감상루트, 가옥생활상 체험루트 - 건축물 개선계획 : 지붕개량, 차폐식재, 건물이전, 한옥으로 개보수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 좋은 마을 기반시설 정비 : 마을안길 황도흙 포장 및 환경정비 - 마을회관 모정 건립 - 소공원 조성 및 환경정비 - 쌀엿체험장, 전통음식 체험장 - 창평국밥 원료 공동작업장 건립 - 창평 상가 간판 정비 - 창평 시가지 주차장 설치(완료)

3.2 경관구조와 자원

경관구조는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평면 전체를 보면 남극루에서 소쇄원으로 이어지는 남북의 가사문학 누정길이 있으며, 이와 연결한 삼지내 마을은 남극루를 남쪽정점으로 하고 북쪽으로 메타세콰이 어길에서 파생되어 창평면사무소와 마을광장을 중심

[표 4] 담양군 창평면의 자원과 경관구조

구분	내 용	경관자원 위치	경관자원 이미지
전통 식품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평쌀엿, 한과, 전통장,추성주 (각 식품명인 21, 33, 35, 22호) - 창평국밥 - 떡갈비, 두부, 장아찌, 약다식 - 친환경농법에 의한 농산물 		<p>담양 창평의 자연경관</p>
경관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봉산 만덕산, 금산, 삼지천, 창평천, 논 - 건축물 : 전통고택과 한옥민박 돌담장, 남극루(향토유형문화유산 3호) - 창평전통시장 - 메타세라이어길 - 한국가사문학관, 상월정 등 		<p>삼지내 마을경관과 돌담길</p>
경관 구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세라이어길에서 파생된 삼지내 마을 내 환형 주축과 소로 2.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중심권역(면사무소, 창평교회, 마을광장, 보건소) - 주거권역 - 민박촌권역 - 시장권역 	<p>경관축</p>	<p>경관권역</p>

으로 한 중심권역을 통과하는 환형주축을 갖는다. 권역은 중심권역, 민박촌권역을 아우르는 삼지내마을과 시가지와 연결한 창평시장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삼지내 마을은 이동과 접근은 양호하지만 평지로서 마을 내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이 존재하지 않아 시각적 개방감을 갖지 못한다. 마을의 경계는 뚜렷하며, 창평면사무소와 마을광장을 중심거점으로 게이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변은 산과 경작지, 소하천 등으로 자연성이 풍부하고 고택과 채래시장

등은 정감 있는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창평면의 정비되지 않은 현대식 건물의 기성시가지와 삼지내 마을이 상충되어 섬과 같이 분리되어 대조를 이루므로, 창평면 일대의 전반적인 경관정비가 필요하다.

3.3 경관 부문별 분석

경관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그 부문을 공공공간, 건축물, 시설물, 시각매체, 환경색채로 구분

[표 5] 담양군 창평면 경관부문별 특성분석

분류	현황 사진	분석 내용
공공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평전통시장은 현대와 전통의 조화를 표방하며 지역의 활력을 주는 공간임. - 면사무소 앞 광장 등은 접근성이 좋은 오픈된 공간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됨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지내 마을내부에는 고가옥은 전통미가 느껴지나 빈 가옥들은 관리의 허점이 노출됨 - 삼지내 마을 외곽의 간선도로변 주변건축물과 간판은 알 수 없는 디자인과 원색적 색채사용으로 부조화되며, 혼란스러움 - 삼지내 마을 내·외부는 경관적 측면에서 단절됨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디자인은 반복적 사용으로 정체성 강화가 필요함 - 형태 뿐 아니라 재질감에 의한 조화가 필요 - 쓰레기통 등의 디자인 부재
시각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내용의 반복적 표지판은 통합 필요함 - 벽면 및 자연스러운 손글씨에 의한 광고판은 슬로시티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음 - 삼지내 마을 외곽 가로의 간판은 원색적이며, 형태 등 개선이 필요함

하여 [표5],[표6]과 같이 분석하였다.

공공공간 중 면사무소 앞 광장은 보호수를 중심으로 한 핵심공간으로 안정적으로 위요되어 있으며, 주변에 숲 공간과 보건소 등이 입지하는 평온한 이미지의 공간이다. 창평전통시장은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 정비사업을 1차적으로 마쳐 시장건물과 주차장 등이 갖춰져 있으나, 전통시장의 고증을 통해 공간을 형성하지 못하고 전통건축물의 이미지를 현대재료에 의해 축조하여 어색한 느낌을 준다.

삼지내 마을 내부의 고택들은 전통경관이미지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빈 가옥들의 허술한 관리와 혼재된 근현대식 건축물이 조화롭지 못해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삼지내 마을 외곽의 간선도로변 주변건축물과 간판은 자극적인 색채사용으로 시각적 혼란을 야기하며, 디자인은 부조화됨으로써 삼지내 마을 내외부는 경관적 측면에서 연속되지 못하고 단

절되어 있다.

창평면의 가로시설물은 대체로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로 디자인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있으며 형태뿐 아니라 재질감에 있어서도 조화가 필요하다. 본디 좋은 디자인은 그 모티브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창평면만의 전통의 디자인 모티브를 도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지판 등의 시각매체는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통합하도록 하며 명시성도 높아 지도록 명도대비에 의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한편 벽면 및 자연스러운 손글씨에 의한 광고판은 슬로시티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를 권장하되, 매체의 크기와 서체 등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창평면의 환경색채는 [표6]과 같다. 토양, 물, 식물, 등 풍토적 특성을 보이는 자연색채는 YR계열의 중저명도, 중저채도에 주로 분포하며, 고택 등 인공물

[표 6] 담양 창평면 요소별 환경색채 분석

분류	현황이미지	주조색	색채 범위
자연 색채	토양	4020-Y30R 5010-Y30R	<p>중·저명도, 중·저채도</p> <p>YR계열에 주로분포</p>
	나무	8010-Y50R 6005-Y50R	
인공물 재료 색채	지붕	0300-N 6500-N 9000-N	<p>고·중·저명도, 저채도</p> <p>무채색계열</p>
	외벽	1515-Y30R 2030-Y30R 4005-Y50R 4020-Y50R 1510-Y50R 3020-Y50R	<p>고·중·저명도, 중·저채도</p> <p>YR계열에 주로분포 일부 무채색계열</p>
경관 색채	자연 경관	3040-G30Y 6010-Y70R 3020-Y70R	<p>고·중명도, 중·저채도에 다양하게 분포</p> <p>R~Y계열에 분포 일부 GY계열</p>
	인공 경관		1510-Y30R 4010-Y30R 7502-Y
			1040-Y40R 1050-R 0502-Y

은 자연색채에 비해 명도가 높아지고 검정, 흰색 등의 무채색이 배색되어 명도대비의 조화로움이 나타났다. 단지 혼재되어 있는 지붕, 대문 등 근현대식 건축의 요소들과 간판, 시설물 등에서 어울리지 않는 색상의 교체도 사용이 두드러져 창평면 슬로시티에 조화되는 환경색채의 정비가 필요하다.

[표 7] 경관정비사업 전후 비교



[표7]은 2010년도 현황분석 당시와 이후 2011년 경관정비사업의 일환으로써 지붕과 대문, 벽체의 정비사업 전후의 이미지이다. 짙은 원색 칠대문은 목재 대문으로 새로 설치되었으며, 원색의 지붕은 검정색 기와형태의 철재지붕재로 정비되어 시각적으로 튀지 않으면서도 깨끗한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흰색 벽체는 수퍼그래픽 처리로 재미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슬로시티 삼지내 마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전통문화 유산인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대적 재료와 가공, 새로운 디자인보다는 고증이 전제된 원형의 전통재료와 가공법, 그에 의한 디자인을 계승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현장답사를 통한 분석에 의해 창평면 슬로시티의 경관특성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창평면 슬로시티는 비옥한 토지와 뛰어난 자연을 배경으로 한 집적한 전통가옥과 돌담길 등 독특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삼지내 마을은 면사무소 앞 마당을 편측중심으로 환형의 축을 가짐으로써 기성시가지와 섬과 같이 분리 구별되었다. 공공공간, 건축물, 시설물, 시각매체로 구분된 부문별 주요 특성으로는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만 철저한 고증 없는 현대적 재료로 정비된 돌담, 벽체, 지붕, 대문 등이 청결하지만 어색함을 자아냈으며, 빈 가옥 등은 관리의 허술함도 보인다. 또한 기성시가지와 마을 내 혼재되어 있는 근·현대식 건축물과 시설물의 자극적 색채의 무분별한 사용은 경관의 부조화를 가져오고 있다.

슬로시티는 전통사회의 인간 고유 존재방식에 의한 안정된 삶을 유지하며, 경쟁과 다툼의 삶이 아닌 자연과 함께 정신적 풍요와 여유를 갖는 생활의 장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사분란한 슬로시티 인증과정과 다양한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 등이 슬로시티의 진정성을 갖는지는 되돌아볼 일이다.

삼지내 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의 경관문화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가능한 목표에 따른 장단기 로드맵에 의해 순차적이고 서두름 없는 일관성 있는 경관디자인 정책과 실행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기존 도시와는 다른 슬로시티만의 경관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삼지내 마을은 물론 창평면 전 지역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전통과 기성시가지의 근·현대 구조물과의 이질적인 혼재를 서서히 개선해나가야 한다. 인공적, 인위적, 단편적 경관형성과 정비를 탈피하여, 미시적으로는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전통 원형재료를 이용하여 연차적인 보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거시적으로는 독특한 슬로시티의 경제활동과 생활상,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 등이 자연스럽게 경관에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의식제고를 위한 모든 지역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현실적인 재정마련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거버넌스를 유도해야만 진정한 슬로시티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걸(2010). 서울을 디자인한다. 디자인하우스.
- 박경문·조영태·최상희·장인석(2008). 국내 슬로시티 발전방안 연구, 지리학연구, 42(2), 237-253.
- 백두주(2008).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4), 111-140.
- 손대현, 장희정(2010). 슬로시티에 취하다. 조선앤북.
- 안종현(2008). 담양군 창평 슬로시티 실태분석,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3(3), 35-49.
- 오동훈, 홍정의(2009). 한국형 슬로시티의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도시행정학보, 22(3), 267-294.
- 전경숙(2010), 담양군 창평면의 슬로시티 도입과 지속가능한 지역 경쟁력 창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3), 1-13.
- 조상필(2008), 국제 슬로시티 가입 기본요건 및 지역발전 시사점, 리전인포, 116, 전남발전연구원.
- 조혜정, 황희정(2009). 인천지역 슬로시티 도입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뉴시스(2009. 4.16일자). '어설픈 행정에 슬로시티 돌담길 와르르'.
- www.cittaslow.kr
- www.slowcp.com
- www.cittaslow.net
- www.greve-in-chianti.com